

# 여성장애인 취업현황과 과제

문유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통계센터 선임연구위원)

동제연(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통계센터 연구원)

전보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통계센터 위촉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여성장애인 취업현황과 과제(요약)

## □ 여성장애인의 취업 수준

-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은 높아
  -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은 19.8%로 매우 낮은 상태임. 전체 여성(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여성)의 고용률은 49.5%, 전체 남성의 고용률은 71.4%, 장애 남성의 고용률은 49.4%로 다른 집단에 비해 큰 차이를 보임.
  - 반면 실업률은 9.3%로 높게 나타남. 남성장애인은 5.8%로 여성장애인보다는 낮으나 전체 남성의 3.6%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장애인들의 취업욕구가 강한 것을 알 수 있음.
  
- 고용률은 25-29세 정점을 보인 후 지속적으로 감소
  - 연령별 고용률을 보면 25-29세에 48.2%로 가장 높은 고용률을 보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함. 전체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이 M자 형을 보이는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여성 장애인 중 중년여성의 취업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보여줌.
  
- 15-29세의 실업률이 가장 높지만 50대와 60세 이상 여성장애인의 실업률도 10.3%와 8.7%로 상당히 높아
  - 연령별 실업률을 보면 4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에 걸쳐 다른 집단보다 월등하게 높은 실업률을 보임. 15-29세의 경우 전체 여성의 실업률은 7.7%임에 비해 여성 장애인 14.3%로 6.6%포인트의 차이를 보이며, 30대는 차이가 더욱 벌어져 전체 여성은 3.5%, 여성 장애인 13.9%로 10.4%포인트의 격차를 보임.
  - 여성 장애인의 규모가 큰 50대와 60세 이상에도 각각 10.3%와 8.7%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당히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음.
  
- 이혼/별거상태인 여성 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 여성에 비해 크게 떨어져
  - 전체 여성은 이혼/별거의 경우 70.6%로 전체 여성 평균 고용률인 49.5%보다 높은 고용률을 보이는 반면 이혼/별거인 여성장애인은 19.1%로 장애 여성 평균 고용률인 19.8%보다도 더욱 낮은 상태임.
  - 이혼/별거의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없으므로 장애 여성 본인이 취업하지 않았을 경우 가구소득이 상당히 낮을 가능성이 있음.

- 이혼/별거의 경우 실업률은 14.9%로 미혼이나 유배우상태인 여성장애인보다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음.
- 여성장애인 중에서도 이혼/별거 상태인 집단의 취업지원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음.

#### ○ 장애정도별 고용률과 실업률

- 장애정도별 고용상태를 보면 중증 여성 장애인의 고용률이 14.2%로 가장 낮은 상태이며, 경증 남성 장애인은 59%로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률을 나타냄.
- 경증 여성 장애인의 고용률은 중증 남성의 고용률보다도 낮은 상태로서 경증 여성 장애인의 실업률은 10.3%로 가장 높아 이들의 취업 욕구가 매우 강함을 보여줌.

#### ○ 장애유형별 취업자 비율

- 장애인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지체장애의 성별 취업현황을 보면 여성 지체장애인 512,758명(15세 이상) 중 취업자는 22%에 불과한 반면 남성 지체장애인은 793,642명 중 61%가 취업자임. 이는 동일한 유형의 장애를 갖고 있어도 성별 차이가 매우 큼을 보여주는 것임.

### □ 취업한 장애여성의 특성

#### ○ 취업자 중 17.3%만이 상용근로자로 고용불안정이 높아

- 취업한 여성 장애인의 종사상의 지위를 보면 임시근로자가 30.3%로 가장 많고, 무급가족 종사자의 비율이 21%로 차상위로 높음. 전체 여성과 비교하면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40.6%임에 비해 장애 여성은 17.3%에 불과해 전체 여성에 비해서 고용불안정이 높게 나타남.

#### ○ 도소매업이 16.1%로 가장 높아

- 취업한 여성 장애인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도매 및 소매업이 16.1%로 가장 높고, 농림어업 및 광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순서로 높음. 남성 장애인은 농림어업 및 광업이 19.6%로 가장 높고 제조업, 도소매업의 순서로 높게 나타나 대조를 이룸.

#### ○ 단순노무직이 32.5%인 반면 전문직은 7.0%로 직업적 위계가 낮아

- 여성 장애인 취업자중 32.4%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림어업종사자, 서비스종사자의 순서로 나타남. 남성 장애인 취업자는 단순노무직이 23.8%로 가장 높고, 농림어업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순서로 나타남.
- 전체 여성은 전문직이 22%, 사무직이 18.9%임에 비해 장애 여성은 각각 7.0%, 8.6%로 나타나, 취업한 장애여성의 직업의 위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혜택을 여성장애인이 덜 받아

- 의무고용제도로 고용된 장애인을 성별로 보면 남성은 80.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여성은 19.5%에 불과함. 15세 이상 남성 장애인이 142만명, 여성 장애인이 102만 9천명으로 여성이 42%를 차지하고 있고, 장애인의 고용률이 남자 49.4%, 여자 19.8%로 여자의 고용률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의무고용제도가 여성 장애인에게 결과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되어 왔음을 보여줌.

## □ 정책과제

- 여성장애인의 취업은 개인의 소득향상은 물론 직업활동을 통한 사회참여로 인해 사회통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우리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정책과제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는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있어서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중요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보이지 않음. 제4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중 여성장애인 관련 내용이 있지만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됨.
- 구체적으로 의무고용률의 산정에 있어 중증장애인은 2배로 계산하여 고용을 장려하고 있으나, 여성장애인은 적용되지 않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개선안이 모색되어야 함.
- 여성장애인의 취업을 위해서는 성차별 금지, 일가정 양립, 모성보호, 성희롱 예방 등 여성취업 정책이 기본적으로 요구됨. 이와 더불어 장애인을 고용한 정부조직과 기업은 이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 단순 업무를 반복적으로 시키기보다는 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동시에 적극적으로 직장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인사정책을 개발하고 직장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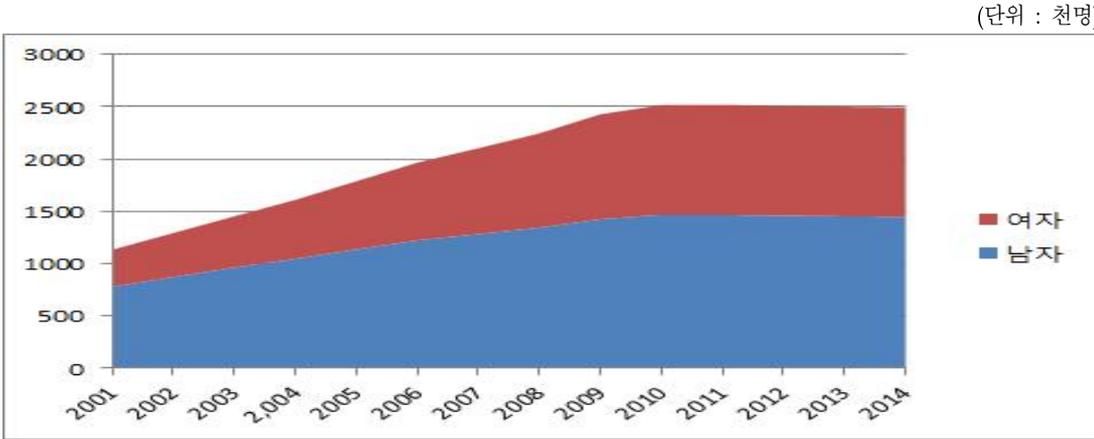
# 여성장애인 취업 현황과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문유경 선임연구위원, 동제연 연구원, 전보영 위촉연구원

## □ 성별 등록장애인 규모

- 등록장애인의 성별 규모를 보면 2014년 현재 남성 장애인은 144만 9천명, 여성 장애인은 104만 6천명임. 지난 14년간의 변화를 보면 남녀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남자는 2001년의 77만9천명에 비해 67만명이, 여자는 35만5천명에 비해 69만1천명이 증가하였음. 여성 장애인 인구의 절대 증가가 남성보다 더 많은 동시에 여성의 장애인 비중도 2001년의 31.3%에서 2014년에 41.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출처: 보건복지부(각년도), 「전국장애인 등록현황」.

<그림 1> 성별 등록장애인 규모

<표 1> 성별 등록장애인 규모와 여성 비중

(단위 : 천명,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남성	779	873	964	1,048	1,139	1,224	1,284	1,346	1,426	1,468	1,466	1,460	1,454	1,449
여성	355	422	490	563	651	744	821	901	1,004	1,049	1,053	1,051	1,048	1,046
여성비중	31.3	32.6	33.7	35.0	36.4	37.8	39.0	40.1	41.3	41.7	41.8	41.8	41.9	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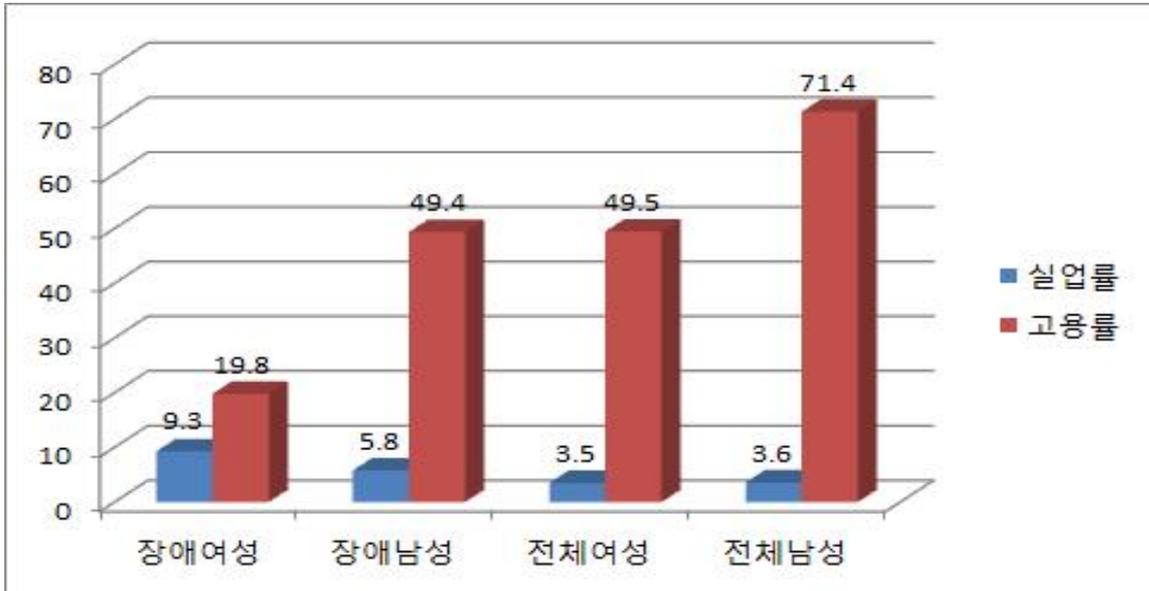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각년도), 「전국장애인 등록현황」.

## □ 여성장애인 경제활동 상태

### ○ 고용률과 실업률

- 여성 장애인의 15세 이상 인구는 2014년 기준으로 102만9천명이며 이 중 취업자는 20만4천명, 실업자는 2만1천명, 비경제활동인구는 80만4천명임.
- 이들의 고용률은 19.8%로 남성 장애인의 고용률인 49.4%에 비해 29.6%포인트 낮으며, 전체 여성의 고용률인 49.5%에 비해 29.7%포인트, 전체 남성의 고용률인 71.4%에 비해 51.6%포인트 낮음.<sup>1)</sup>
- 반면 실업률은 여성장애인이 9.3%로 가장 높고 남성장애인이 5.8%로 그 다음으로 높으며, 전체 여성과 남성은 각각 3.5%, 3.6%로 비슷한 수준임.
- 이는 여성장애인 집단의 취업상태가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열악함을 보여주는 것임.

(단위 : %)



출처: 1) 통계청, 'KOSIS' 홈페이지. <http://kosis.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4),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 통계청, 'KOSIS' 홈페이지. <http://kosis.kr>. (통계청(2014),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 성별 장애유무별 고용률과 실업률(2014)

1) 전체인구에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인구를 말함.

<표 2> 성별 장애유무별 경제활동상태(2014)

(단위 : 천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계	취업자	실업자					
장애 인구 <sup>1)</sup>	전체	2,449	971	906,267	64	1,479	39.6	6.6	37.0
	여성	1,029	225	204,123	21	804	21.9	9.3	19.8
	남성	1,420	746	702,144	44	675	52.5	5.8	49.4
전체 인구 <sup>2)</sup>	전체	42,513	26,536	25,599	937	15,977	62.4	3.5	60.2
	여성	21,718	11,149	10,761	389	10,568	51.3	3.5	49.5
	남성	20,795	15,387	14,839	548	5,409	74.0	3.6	71.4

주: 가중치 적용 등으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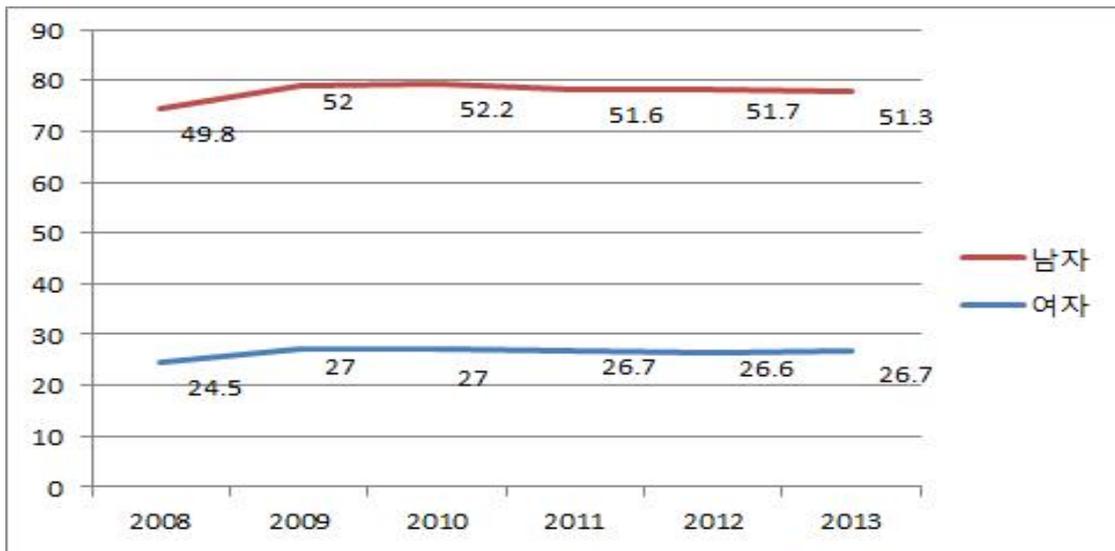
출처: 1) 통계청, 'KOSIS' 홈페이지. <http://kosis.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4),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 통계청, 'KOSIS' 홈페이지. <http://kosis.kr>. (통계청(2014), 「경제활동인구조사」)

○ 연도별 추이(2008-2013)

- 여성 장애인의 지난 6년간 연도별 고용률 추이를 보면 2008년도에 24.5%에서 27%로 증가한 후에 2011년도에 26.7%로 0.3%포인트 감소한 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음. 남성 장애인의 경우도 2010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sup>2)</sup>

(단위 : %)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http://gsis.kwdi.re.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각년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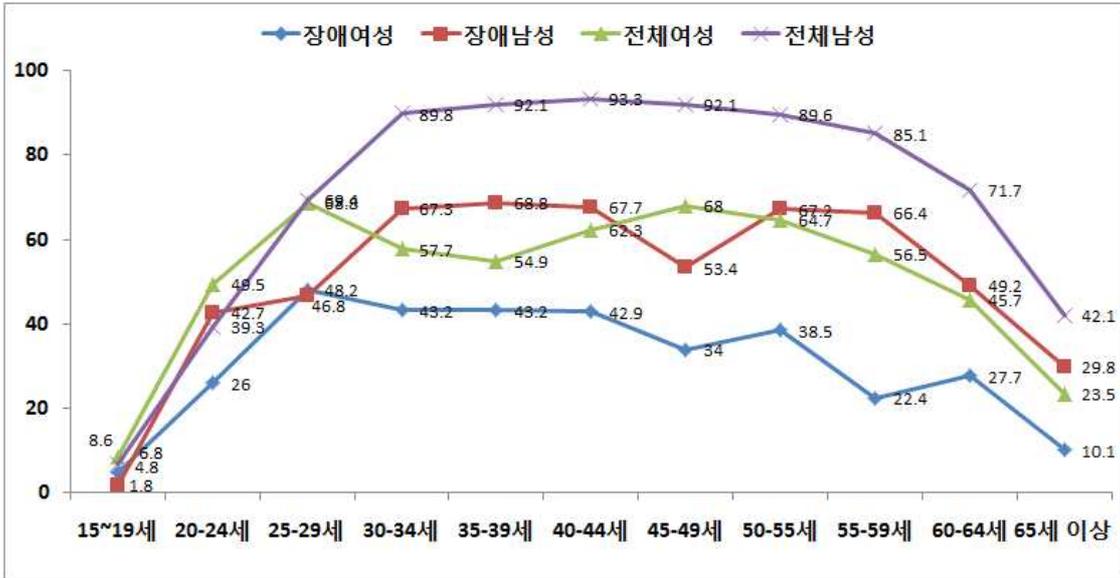
<그림 3> 성별 장애인 고용률 추이(2008-2013)

2) 조사의 출처가 상이하여 고용률에 차이가 있음.

○ 연령별 고용률

- 여성 장애인의 고용률을 연령별로 보면 25-29세에 4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65세 이상은 10.1%의 낮은 고용률을 보임. 전체여성이 25-29세에 가장 높은 고용율을 보이다가 감소한 이후에 45-49세에 이와 유사한 68%의 높은 고용률을 보이는 전형적인 M자 유형과는 대조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낮아지는 유형을 보임.

(단위: %)



출처: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4),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통계청(2014),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4> 성별 연령별 장애유무별 고용률(2014)

<표 3> 성별 장애유무별 연령별 고용률(2014)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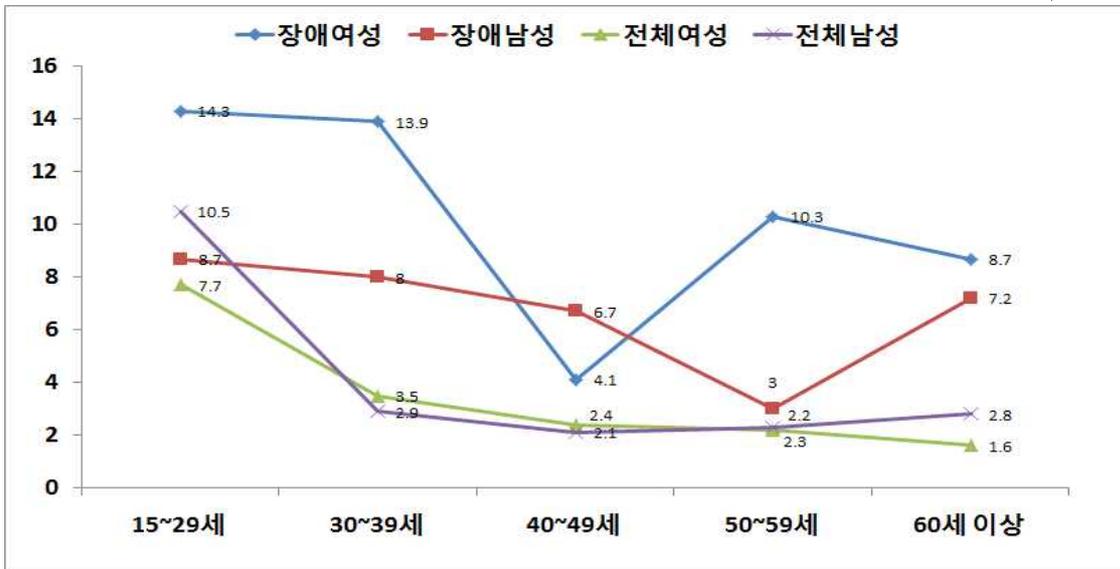
구분		합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5세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장애 인구 1)	전체	37.0	3.1	36.8	47.4	61.1	61.6	60.4	47.9	58.6	51.1	40.3	19.2
	남성	49.4	1.8	42.7	46.8	67.3	68.8	67.7	53.4	67.2	66.4	49.2	29.8
	여성	19.8	4.8	26.0	48.2	43.2	43.2	42.9	34.0	38.5	22.4	27.7	10.1
전체 인구 2)	전체	60.2	7.7	44.8	69.1	74.1	73.7	78.0	80.2	77.2	70.8	58.3	31.3
	남성	71.4	6.8	39.3	69.4	89.8	92.1	93.3	92.1	89.6	85.1	71.7	42.1
	여성	49.5	8.6	49.5	68.8	57.7	54.9	62.3	68.0	64.7	56.5	45.7	23.5

출처: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4),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통계청(2014),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 연령별 실업률

- 연령별 실업률을 보면 40대를 제외하면 전 연령에 걸쳐 다른 집단보다 월등하게 높은 실업률을 보임. 15-29세의 경우 전체 여성의 실업률은 7.7%임에 비해 여성 장애인은 14.3%로 6.6%포인트의 차이를 보이며, 30대는 차이가 더욱 벌어져 전체 여성은 3.5%, 여성 장애인은 13.9%로 10.4%포인트의 격차를 보임.
- 여성 장애인의 규모가 큰 50대와 60세 이상에도 각각 10.3%와 8.7%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당히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음.

(단위 : %)



출처: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4),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통계청(2014),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5> 성별 장애유무별 연령별 실업률

<표 4> 성별 연령별 장애인구/전체인구 실업률(2014)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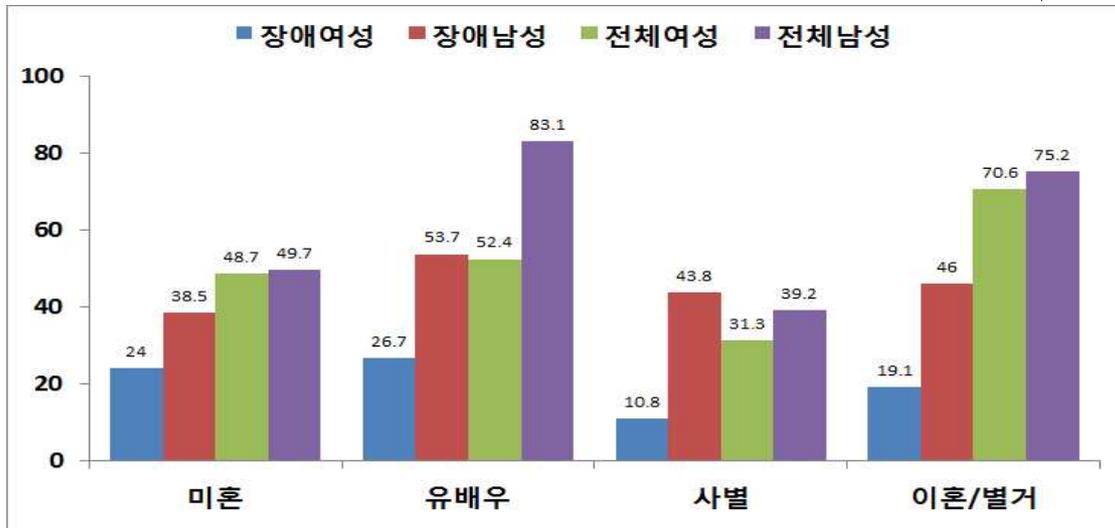
구분		합계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장애 인구 1)	전체	6.6	10.6	9.2	6.2	4.3	7.6
	남성	5.8	8.7	8.0	6.7	3.0	7.2
	여성	9.3	14.3	13.9	4.1	10.3	8.7
전체 인구 2)	전체	3.5	9.0	3.1	2.2	2.2	2.3
	남성	3.6	10.5	2.9	2.1	2.3	2.8
	여성	3.5	7.7	3.5	2.4	2.2	1.6

출처: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4),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통계청(2014),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 혼인상태별 고용률

- 혼인상태별 고용률을 보면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별거 모든 상태에서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여성보다 낮음. 가장 격차가 큰 집단은 유배우 집단으로 유배우 전체 남성의 고용률이 83.1%임에 비해 유배우 여성 장애인의 고용률은 26.7%로 56.4% 포인트의 차이를 보임.
- 전체 여성과 장애 여성을 비교하면 이혼/별거 상태인 경우 큰 차이가 있음. 전체 여성은 이혼/별거의 경우 70.6%로 전체 여성 평균 고용률인 49.5%보다 높은 고용률을 보이는 반면 이혼/별거인 여성장애인은 19.1%로 장애 여성 평균 고용률인 19.8%보다도 더욱 낮은 상태임. 이혼/별거의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없으므로 장애 여성 본인이 취업하지 않았을 경우 가구소득이 상당히 낮을 가능성이 있음.

(단위 : %)



출처: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4),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통계청(2014),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6> 성별 장애유무별 혼인상태별 고용률(2014)

<표 5> 성별 장애유무별 혼인상태별 고용률(2014)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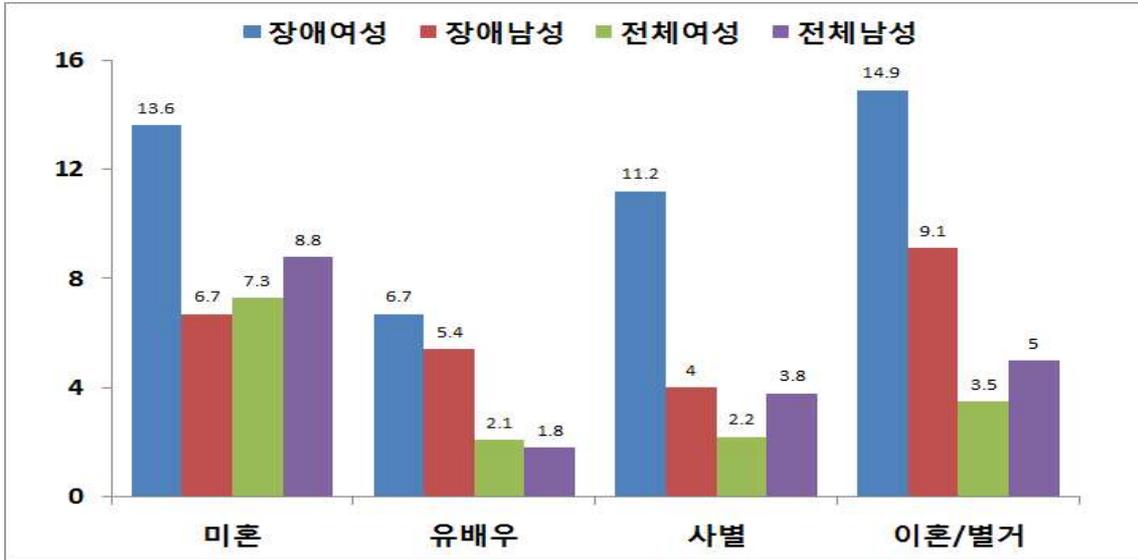
구분		합계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별거
장애 인구 <sup>1)</sup>	전체	37.0	34.3	45.0	16.4	35.2
	남성	49.4	38.5	53.7	43.8	46.0
	여성	19.8	24.0	26.7	10.8	19.1
전체 인구 <sup>2)</sup>	전체	60.2	49.2	67.8	32.3	72.8
	남성	71.4	49.7	83.1	39.2	75.2
	여성	49.5	48.7	52.4	31.3	70.6

출처: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4),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통계청(2014),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 혼인상태별 실업률

- 모든 혼인상태에서 다른 집단보다 여성 장애인의 실업률이 높게 나타남. 특히 이혼/별거의 경우 고용률이 낮은 것과 연결되어 14.9%의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음. 이는 이혼/별거인 전체여성의 실업률이 3.5%에 비해 11.4%나 높은 수치임.
- 여성 장애인의 경우 이혼/별거 다음으로 미혼여성의 실업률이 13.6%로 높게 나타남.

(단위 : %)



출처: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4),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통계청(2014),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7> 성별 장애유무별 혼인상태별 실업률(2014)

<표 6> 성별 장애유무별 혼인상태별 실업률(2014)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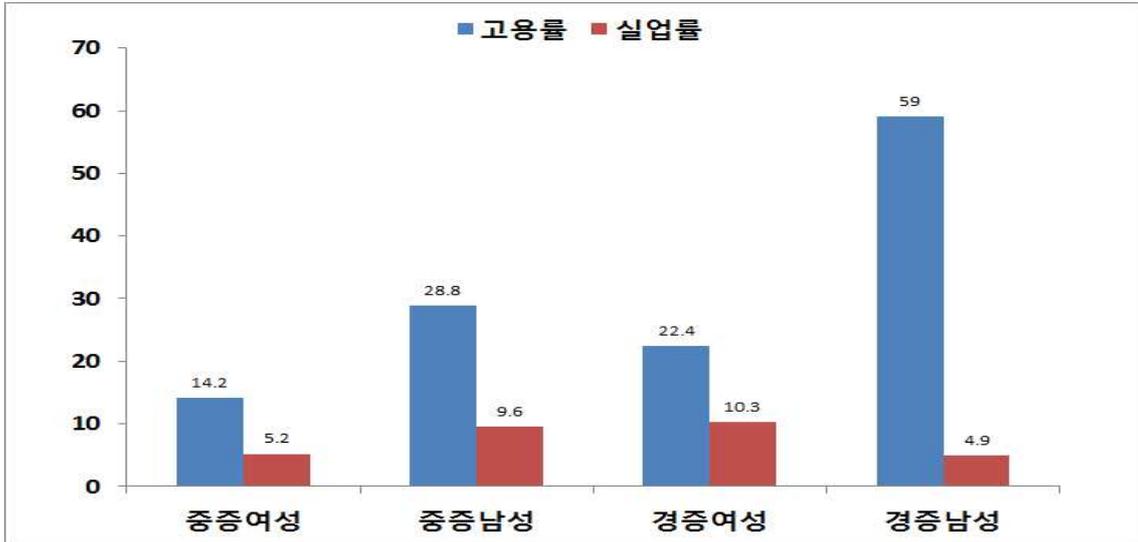
구분		합계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별거
장애 인구 1)	전체	6.6	8.1	5.6	8.0	10.4
	남성	5.8	6.7	5.4	4.0	9.1
	여성	9.3	13.6	6.7	11.2	14.9
전체 인구 2)	전체	3.5	8.1	1.9	2.5	4.2
	남성	3.6	8.8	1.8	3.8	5.0
	여성	3.5	7.3	2.1	2.2	3.5

출처: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4),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통계청(2014),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 장애정도별 고용률과 실업률

- 장애정도별 고용상태를 보면 중증 여성 장애인의 고용률이 14.2%로 가장 낮은 상태이며, 경증 남성 장애인의 59%로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률을 나타냄.
- 경증 여성 장애인의 실업률은 10.3%로 가장 높아 이들의 취업 욕구가 매우 강함을 보여줌. 경증 여성 장애인의 고용률은 중증 남성의 고용률보다도 낮은 상태임.

(단위 : %)



주: 중증장애인은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급이 해당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4),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8> 성별 장애정도별 고용률과 실업률

<표 7> 성별 장애정도별 경제활동상태(2014)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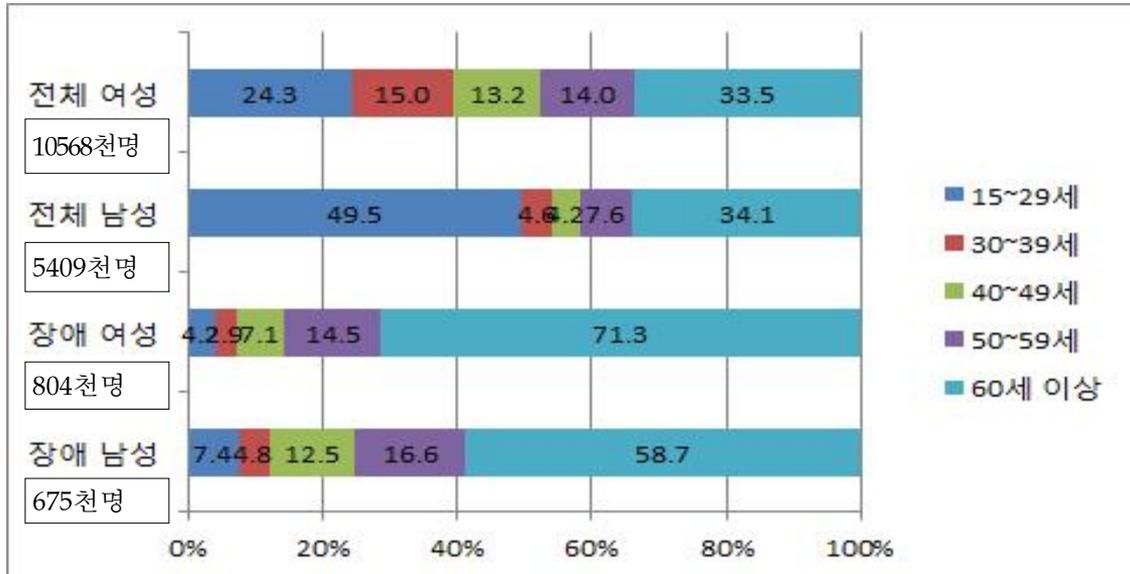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경활률	실업률	고용률	
	인구 수	비중	소 계	취업자	실업자					
중증	남성	449,999	18.4	143,191	129,402	13,789	306,808	31.8	9.6	28.8
	여성	321,202	13.1	48,146	45,620	2,526	273,056	15.0	5.2	14.2
경증	남성	970,293	39.6	602,472	572,742	29,730	367,821	62.1	4.9	59.0
	여성	707,943	28.9	176,790	158,503	18,287	531,153	25.0	10.3	22.4
장애 인구		2,449,437	100.0	970,600	906,267	64,333	1,478,837	39.6	6.6	37.0

주: 중증장애인은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급이 해당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4),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연령별 비경제활동 인구 규모

- 비경제활동 인구 규모를 보면 남녀 장애인 모두 60세 이상이 가장 큰 규모를 보임. 여성 장애인은 60세 이상이 전체 비경활인구의 71.3%이고, 남성 장애인 역시 58.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전체 남성의 49.5%는 15-29세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은 주로 학업중이거나 취업준비생 들임.

(단위 : %)



출처: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4),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통계청(2014),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9> 성별 장애유무별 비경제활동 연령별 분포

<표 8> 성별 장애유무별 연령별 비경제활동인구 규모(2014)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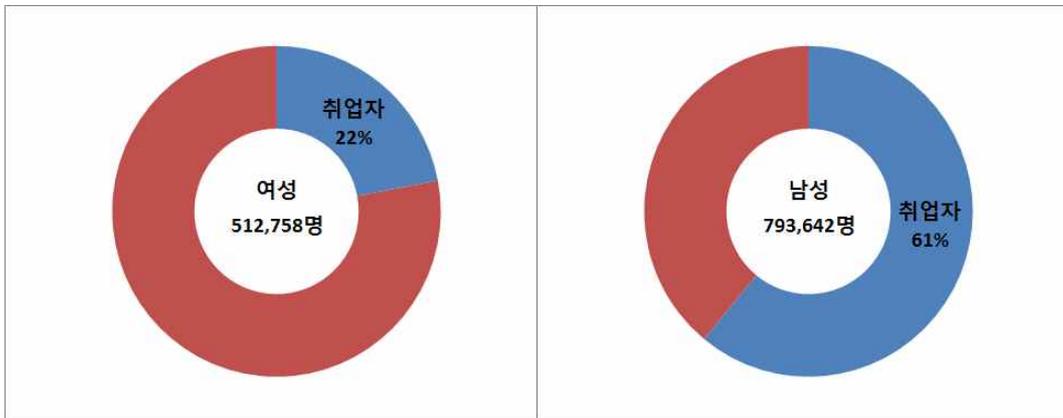
구분		합계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장애 인구 <sup>1)</sup>	전체	1,478,836	83,771	55,095	141,705	228,834	969,431
	남성	674,627	50,076	32,050	84,532	111,997	395,972
	여성	804,209	33,695	23,045	57,173	116,837	573,459
전체 인구 <sup>2)</sup>	전체	15,976,946	5,247,989	1,831,678	1,617,382	1,895,785	5,384,112
	남성	5,408,775	2,678,798	249,338	224,531	412,347	1,843,761
	여성	10,568,171	2,569,191	1,582,340	1,392,851	1,483,438	3,540,351

출처: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4),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통계청(2014),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 □ 여성장애인 취업자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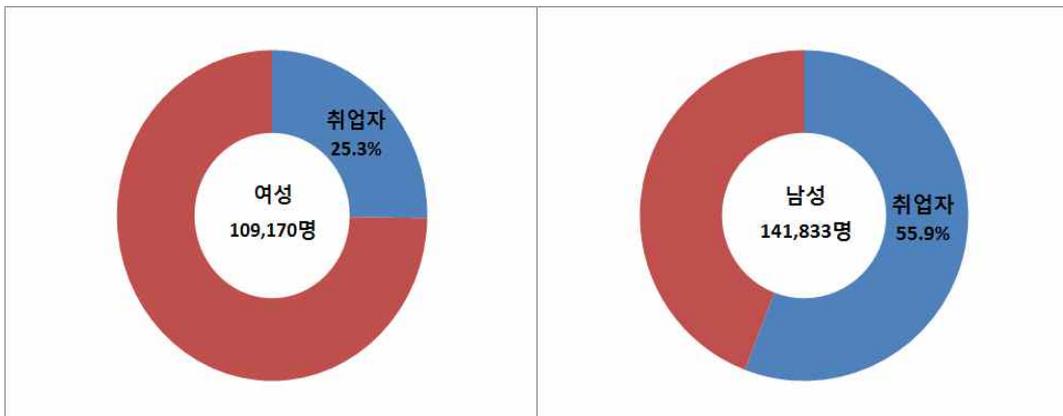
### ○ 장애유형별 취업자 비율

- 장애인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지체장애의 성별 취업현황을 보면 여성 지체장애인 512,758명(15세 이상) 중 취업자는 22%에 불과한 반면 남성 지체장애인은 793,642명 중 61%가 취업자임.
- 시각장애인 역시 남녀의 취업상태의 차이를 보임. 여성 시각장애인 109,170명(15세 이상) 중 25.3%가 취업자인 반면, 남성 시각장애인은 55.9%가 취업자로 나타남. 이는 장애의 유형에 의한 차이보다 성별로 인한 취업여부의 차이가 큼을 보여줌.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4),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10> 성별 지체장애인의 취업자 비율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4),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11> 성별 시각장애인의 취업자 비율

○ 학력별 취업자 분포

- 취업한 여성 장애인의 학력분포를 보면 중졸이하가 52.8%로 가장 높고, 고졸이 32.2%, 대졸이상이 15.1%임. 반면 남성 장애인의 경우 대졸이상이 20.7%, 고졸이 37.2%로 나타나, 여성 장애인의 학력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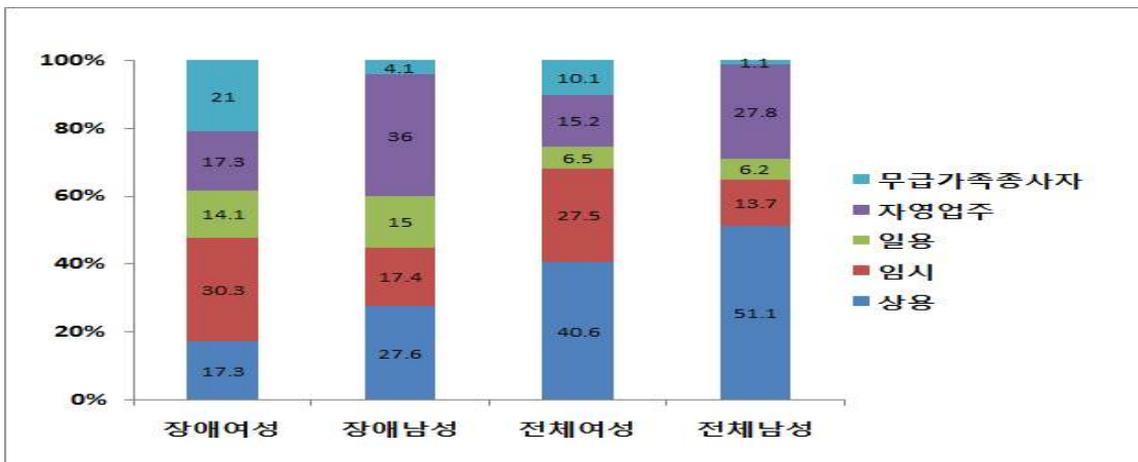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4),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12> 성별 장애인 취업자 학력분포

○ 종사상의 지위 분포

- 취업한 여성 장애인의 종사상의 지위를 보면 임시근로자가 30.3%로 가장 많고,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21%로 차상위로 높음. 전체 여성과 비교하면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40.6%임에 비해 장애 여성은 17.3%에 불과해 전체 여성에 비해서 고용불안정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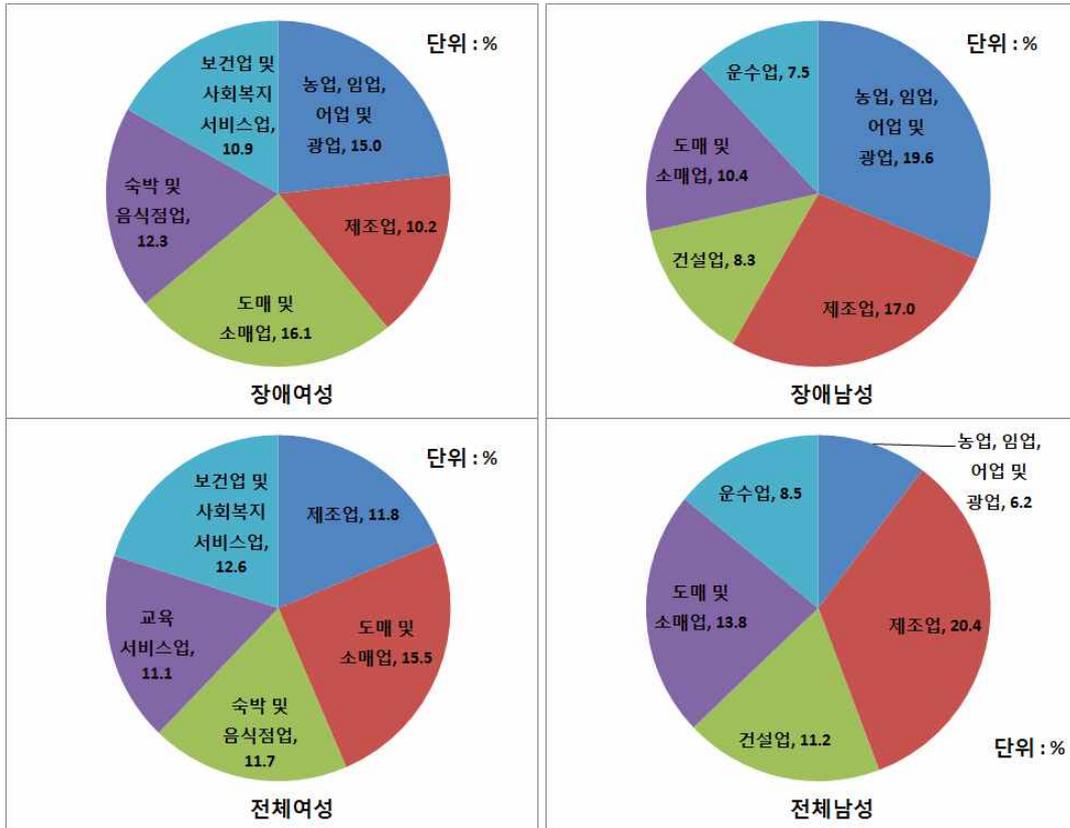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4),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13> 성별 장애유무별 종사상의 지위분포

○ 산업별 취업자 분포

- 취업한 여성 장애인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도매 및 소매업이 16.1%로 가장 높고, 농림어업 및 광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순서로 높음. 남성 장애인은 농림어업 및 광업이 19.6%로 가장 높고 제조업, 도소매업의 순서로 높게 나타나 대조를 이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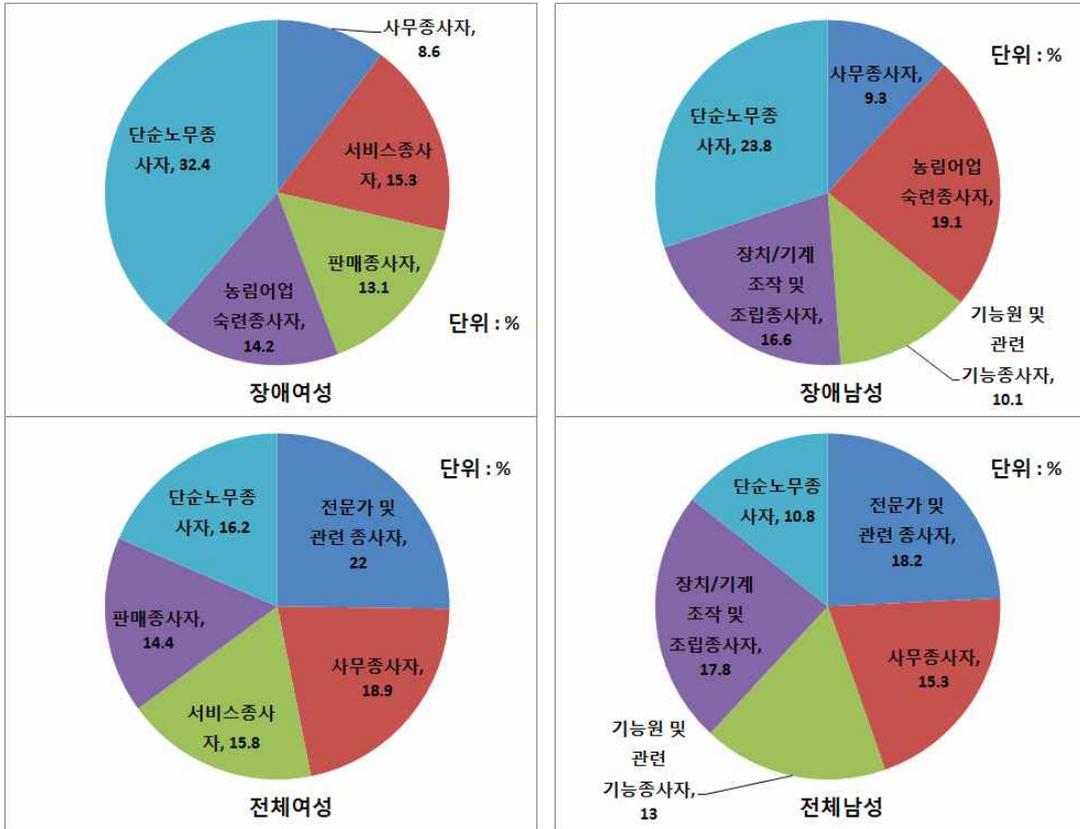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4),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14> 성별 장애인 취업자 산업분포

○ 직업별 취업자 분포

- 여성 장애인 취업자중 32.4%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림어업종사자, 서비스 종사자의 순서로 나타남. 남성 장애인 취업자는 단순노무직이 23.8%로 가장 높고, 농림어업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순서로 나타남.
- 전체 여성은 전문직이 22%, 사무직이 18.9%임에 비해 장애 여성은 각각 7.0%, 8.6%로 나타나, 취업한 장애여성의 직업의 위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4),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15> 성별 장애인 취업자 직업분포

## □ 여성장애인의 의무고용 현황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 취업 촉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50명 이상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100명 사업주에 대해서는 미준수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임.<sup>3)</sup> 이 제도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약칭 장애인고용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음.<sup>4)</sup> 연도별 의무고용률을 보면 2014년 현재 공무원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부문은 3.0%, 민간부문은 2.7%로 해마다 비율을 점증적으로 늘려오고 있음.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https://www.kead.or.kr/view/system/system02.jsp> 참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표 9>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단위 : %)

구분	2010-11년	2012-13년	2014년
-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	3	3
- 민간사업주 -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 아닌 근로자)	2.3	2.5	2.7
- 기타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2.3	2.5	3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http://www.kead.or.kr>.

- 2014년도의 의무고용률의 달성도를 보면 정부부문 중 공무원 아닌 근로자 부문을 제외한 다른 부문은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공무원은 2.65%, 공공기관 2.91%로 의무비율인 3.0%를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민간기업 역시 2.45%로 의무비율인 2.5%를 채우지 못하고 있음. 공무원 아닌 근로자 부문만 3.75%로 의무비율인 2.5%를 초과하고 있음.

<표 10> 부문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2014)

(단위 : 사업체수, 명, %)

구분	적용대상사업체	상시근로자	장애인근로자	고용률	목표율	
합계	27,488	7,570,281	158,388	2.54	-	
정부부문	소계	608	1,110,935	26,874	2.91	-
	공무원	313	846,270	19,553	2.65	3.0
	공무원 아닌 근로자	295	264,665	7,321	3.75	2.7
공공기관	소계	532	410,618	10,604	2.91	3.0
민간기업	소계	26,348	6,048,728	120,910	2.45	2.7

주: 1) 장애인 고용률 = (장애인근로자 수/상시근로자 수)×100

2) 미달인원의 합계와 소계는 초과인원을 제외하고 계산하였음.

출처: 통계청, 'KOSIS' 홈페이지. <http://kosis.kr>. (고용노동부(2014), 「장애인의무고용현황」)

- 동 제도는 의무사항으로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미약하게나마 장애인의 고용률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고 있음.
- 의무고용 장애인을 성별로 보면 남성은 80.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여성은 19.5%에 불과함. 15세 이상 남성 장애인이 142만명, 여성 장애인이 102만 9천명으로 여성이 42%를 차지하고 있고, 장애인의 고용률이 남자 49.4%, 여자 19.8%로 여자의 고용률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의무고용제도가 여성 장애인에게 결과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되어 왔음을 보여줌.

<표 11> 부문별 의무고용 인원 중 여성 비율(2014)

(단위 : 명, %)

구 분	계	여 성		남 성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계	158,388	30,915	19.5	127,473	80.5	
정 부	공무원	19,553	3,958	20.2	15,595	79.8
	비공무원	7,321	2,406	32.9	4,915	67.1
공공기관	10,604	1,286	12.1	9,318	87.9	
민간기업	120,910	23,265	19.2	97,645	80.8	

출처: 고용노동부(2014), 「장애인의무고용현황」 내부자료.

## □ 여성장애인 취업의 정책과제

- 여성장애인의 취업상태는 어떤 다른 집단보다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10명 중 2명만이 취업한 상태이며, 취업자중 상용직은 17.3%로 여성 장애인 10명중 상용직근로자는 0.3명에 불과함. 여성 장애인이 취업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것은 이들의 실업률이 9.3%에 달하고 있는 것에서 잘 나타남.
- 여성장애인의 취업은 개인의 소득향상은 물론 직업활동을 통한 사회참여로 인해 사회통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우리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정책과제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는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있어서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중요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보이지 않음. 제4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중 여성장애인 관련 내용이 있지만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됨.
- 구체적으로 의무고용률의 산정에 있어 중증장애인은 2배로 계산하여 고용을 장려하고 있으나, 여성장애인은 적용되지 않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개선안이 모색되어야 함.
- 여성장애인의 취업을 위해서는 성차별 금지, 일가정 양립, 모성보호, 성희롱 예방 등 여성취업 정책이 기본적으로 요구됨. 이와 더불어 장애인을 고용한 정부조직과 기업은 이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 단순 업무를 반복적으로 시키기보다는 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동시에 적극적으로 직장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인사정책을 개발하고 직장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부표 1> 성별 장애유형별 취업자 분포

(단위 : 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취업자	
장애인구	전체	전체	2,449,435	906,267 (100.0)
		신체장애 - 지체장애	1,306,400	596,762 (65.8)
		신체장애 - 지체장애 외	245,817	28,936 (3.2)
		감각장애 - 시각장애	251,003	106,841 (11.8)
		감각장애 - 시각장애 외	268,542	85,082 (9.4)
		정신적 장애	262,085	60,675 (6.7)
		신체내부 장애	115,588	27,971 (3.1)
	남성	전체	1,420,290	702,144 (100.0)
		신체장애 - 지체장애	793,642	483,854 (68.9)
		신체장애 - 지체장애 외	136,015	21,271 (3.0)
		감각장애 - 시각장애	141,833	79,268 (11.3)
		감각장애 - 시각장애 외	137,671	58,776 (8.4)
		정신적 장애	142,384	38,668 (5.5)
		신체내부 장애	68,745	20,307 (2.9)
	여성	전체	1,029,145	204,123 (100.0)
		신체장애 - 지체장애	512,758	112,908 (55.3)
		신체장애 - 지체장애 외	109,802	7,665 (3.8)
		감각장애 - 시각장애	109,170	27,573 (13.5)
		감각장애 - 시각장애 외	130,871	26,306 (12.9)
		정신적 장애	119,701	22,007 (10.8)
		신체내부 장애	46,843	7,664 (3.8)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4),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2> 성별 학력별 취업자 분포

(단위 : 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취업자	
장애인구	전체	전체	2,449,436	906,267 (100.0)
		중졸 이하	1,473,017	403,534 (44.5)
		고졸	692,724	326,808 (36.1)
		대졸 이상	283,695	175,925 (19.4)
	남성	전체	1,420,291	702,144 (100.0)
		중졸 이하	695,871	295,812 (42.1)
		고졸	505,233	261,181 (37.2)
		대졸 이상	219,187	145,151 (20.7)
	여성	전체	1,029,145	204,123 (100.0)
		중졸 이하	777,146	107,722 (52.8)
		고졸	187,491	65,627 (32.2)
		대졸 이상	64,508	30,774 (15.1)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4),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3> 성별 산업별 취업자 분포

(단위 : 명,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장애인구	전체	906,267 (100.0)	702,144 (100.0)	204,123 (100.0)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168,501 (18.6)	137,898 (19.6)	30,603 (15.0)
	제조업	140,266 (15.5)	119,404 (17.0)	20,862 (10.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68 (0.0)	368 (0.1)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399 (0.4)	3,150 (0.4)	249 (0.1)
	건설업	59,799 (6.6)	58,143 (8.3)	1,656 (0.8)
	도매 및 소매업	105,568 (11.6)	72,699 (10.4)	32,869 (16.1)
	운수업	54,781 (6.0)	52,795 (7.5)	1,986 (1.0)
	숙박 및 음식점업	49,309 (5.4)	24,248 (3.5)	25,061 (12.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8,285 (0.9)	6,259 (0.9)	2,026 (1.0)
	금융 및 보험업	16,526 (1.8)	13,452 (1.9)	3,074 (1.5)
	부동산업 및 임대업	22,074 (2.4)	20,219 (2.9)	1,855 (0.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939 (1.3)	11,751 (1.7)	188 (0.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60,803 (6.7)	48,374 (6.9)	12,429 (6.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53,309 (5.9)	34,555 (4.9)	18,754 (9.2)
	교육 서비스업	28,371 (3.1)	21,512 (3.1)	6,859 (3.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7,331 (6.3)	35,025 (5.0)	22,306 (10.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5,744 (1.7)	12,189 (1.7)	3,555 (1.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4,087 (4.9)	28,175 (4.0)	15,912 (7.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 생산 활동	1,372 (0.2)	-	1,372 (0.7)
국제 및 외국기관	12 (0.0)	12 (0.0)	-	
모름/응답거절	4,423 (0.5)	1,916 (0.3)	2,507 (1.2)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4),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4> 성별 직업별 취업자 분포

(단위 : 명,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장애인구	전체	906,266 (100.0)	702,143 (100.0)	204,123 (100.0)
	관리자	22,281 (2.5)	21,734 (3.1)	547 (0.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8,238 (6.4)	43,978 (6.3)	14,260 (7.0)
	사무종사자	82,575 (9.1)	65,090 (9.3)	17,485 (8.6)
	서비스종사자	61,429 (6.8)	30,249 (4.3)	31,180 (15.3)
	판매종사자	74,875 (8.3)	48,204 (6.9)	26,671 (13.1)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63,140 (18.0)	134,205 (19.1)	28,935 (14.2)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79,545 (8.8)	71,262 (10.1)	8,283 (4.1)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125,368 (13.8)	116,363 (16.6)	9,005 (4.4)
	단순노무종사자	233,343 (25.7)	167,122 (23.8)	66,221 (32.4)
	모름/응답거절	5,472 (0.6)	3,936 (0.6)	1,536 (0.8)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4),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